

# 李退溪의 思想과 行動(一)\*\*

阿部吉雄\*

## • 目 次 •

I. 序 -이퇴계 연구회 설립의 취지	III. 著書
II. 이퇴계의 생애와 사상	IV. 日本 儒學의 발전과 李退溪
1. 略傳	V. 佐藤直方派의 李退溪 尊信
2. 사람됨과 생활태도	VI. 李退溪의 철학적 수양론과 日本 儒學
3. 詩文·書法	
4. 退溪學의 성격과 역사적 지위	

## I. 序 -李退溪 연구회 설립의 취지-

이퇴계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일본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그 概略을 알기 위하여는 동경에 설립한 이퇴계연구회 설립의 趣意 書가 있다. 이것을 첫머리에 실어 序說에 대신하고자 한다.

### 취지의 大要

이퇴계는 한국이 자랑하는 가장 위대한 학자이며 교육가이고, 또한 이 三百 數十年來 일본의 뜻있는 학자들로부터 대단히 존송되었던 사람이다.

\* 전 東京大 교수(작고)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21호(1979) 게재논문

극언하면 제2의 王仁이라고 하여도 좋을 정도의 영향을 일본의 精神史上에 남겼다. 이러한 사실을 지금의 일본인들은 많이 잊어가고 있다.

그 위에 그 인간탐구의 깊이에 있어서, 그리고 마음의 淸高함을 구하는 수양법에 있어서나 또는 현대에 있어서도 크게 계발되고 시사되는 바가 있다. 이제 세계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러한데, 문명병이라고 불리우는 마음의 病巢에 시달릴 대로 시달리어 새로이 빛을 동방에 구하여 기사회생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이같은 현대에 있어 한국에서는 물론, 일본에서도 오랜 동안 존경을 받아 온 이퇴계를 중심으로 하여, 다시 거슬러 올라가 공자, 맹자, 주자 등의 근본정신에 새로운 조명을 하여 재평가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특히 韓·日 양국민의 마음으로부터의 結付를 공고히 하는 데 있어 가장 肝要한 한 점이 될 것을 확신한다.

다행히 한국에는 퇴계학연구원이 있으며 근자에 이퇴계를 祭祀하는 風光絶佳의 땅 도산서원의 境內에 정부의 자금원조 아래 건물을 건조하여 세계각국의 학자에게 연구시설을 대여하려 하고 있다. 또 대구의 국립 慶北大學校에는 退溪研究所가 부설되어 있다. 여기에 호응하여 本會의 발족을 본 것은 時宜를 얻은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일 양국민의 마음으로부터의 이해와 우호를 깊이 하려는 사람, 나아가 일본의 정신계의 위기, 인류의 정신적 퇴폐를 깊이 우려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본회에 입회하여 원조를 주실 것을 切望한다.

### 李退溪라는 사람

이퇴계는 이름은 滉, 경상북도 안동 사람이다. 재작년(1970)은 몰후 400년에 해당한다고 하여 서울특별시의 남산 기슭에 커다란 동상이 세워졌다. 서울의 중요한 大路의 하나에도 「퇴계로」라 이름붙여져 있다.

그런 정도로 한국 사람들로부터는 신처럼 존경되고 누구 한 사람도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 講學의 땅 도산서원에는 신으로 제사 지내어지고 그 서원도 잘 修

復되어 한국의 名勝舊蹟으로, 또 한국 儒林의 성지로서 參詣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

작년 여름 우리들 회원 4명이 이곳을 방문하여 잠깐의 시간을 이용하여 강연회를 열었던 바 老若男女 수백 명이 버스로 연이어 운집하여 열기 넘치는 대환영을 받았다. 후에 들으니 젊은 남녀는 대부분 학교의 교원이라고 하는데, 나는 많은 사람들로 부터 굳은 악수의 청을 받았다. 이퇴계에 관한 일이라고 하면 한국의 新聞界는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주어, 본회의 설립에 대하여도 그 반향이 큰 것은 상상을 넘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퇴계는 그 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주 왕실로부터 고위고관으로 취임하도록 간청되었으나 固辭하여 상경한 일이 적었으며 오로지 연구와 수양, 교육과 저술에 始終한 사람이었다.

물론 일본에 渡航한 일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도(江戶)의 유교문화발흥 當初로부터 明治시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학자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다.

#### 일본유학의 開祖와 李退溪

먼저 일본근세유학의 開祖 藤原惺窩는 임란의 포로 姜沆을 師로 삼고 友로 하여 처음으로 유학을 일으킨 사람인데 그 가장 尊信한 책은 이퇴계가 발문을 붙여 간행한 『延平答問』이며, 門人 林羅山이 德川家康에게 베풀하려 할 때 천하의 萬民 萬世를 위하여 이 책을 숙독할 것을 가르쳐 전수한 것이다.

林羅山은 이퇴계의 저서 『天命圖說』을 읽고 계발되어 「어느 땅에서인들 才를 生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여, 이퇴계의 학식에 대단히 감탄하고서 이 책의 간행에 조력하였다.

「退溪李氏拔群殊, 貴國儒名世皆呼」란, 그가 朝鮮 國使에게 보낸 詩 가운데의 一句인데 이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羅山은 이퇴계를 조선이 낳은, 드물게 보는 偉才로 인정하여 조선 國使가 내방할 때마다 이

퇴계를 화제로 삼았다.

#### 李退溪를 가장 尊崇한 山崎派

그런데 다음에 일어난 山崎闇齋에 이르러서는 이퇴계의 학문, 사상, 인격에 몹시 共鳴하여 그 저술을 전부 통독하여 자기의 인간관, 학문관, 교육관의 중요한 根柢로 삼았다. 闇齋의 학문은 이퇴계의 학문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조선의 一人」, 「주자의 直弟子와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여 이퇴계의 저술이나 言說에 대하여도 하나하나 이것을 들어 적절히 평가하였다. 따라서 그 門流에도 이퇴계 尊信의 기풍이 전하여 그 가운데서도 佐藤直方은 「조선의 이퇴계 뒤로는 이 道를 負荷하고자 하는 자를, 나는 아직 듣지 못하였다.」 「그 학식이 도달한 바는 크게 元·明 諸儒의 類가 아니다.」라고 心腹하였으며, 佐藤派의 稻葉默齋는 「주자 이래의 一人」, 「小成의 주자」, 「주자의 道統」이라고 존송하였다.

또 특히 주의하여야 할 것은 일본 勤皇論의 선구자 淺見綱齋나 谷奏山 등에게도 존경되어 그 저술 가운데 많이 인용되었다는 사실이다.

#### 古今絶無의 眞儒라고 평가한 熊本實學派

또 이상의 山崎派와는 달리 熊本에 大塚退野의 一派가 일어나 山崎派 이상으로 이퇴계를 존신하였다. 大塚退野는 이퇴계의 『自省錄』을 읽고 초연히 자득하여 『朱子書節要』를 精研하기를 40여년에 이르러 드디어 熊本實學派의 祖가 되었다.

따라서 그 門人 藪孤山은 「百世之下, 주자의 실마리를 계승하는 자는 퇴계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고, 幕末의 俊傑 橫井小楠에 이르러서는 元·明시대를 통하여 「古今絶無의 眞儒」라고까지 절찬하였다.

橫井小楠을 師이자 友로 삼아 그 絶大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은 元田永孚이다. 元田은 「明治 제일의 공신」이라 불리어, 명치천황을 보좌하여 명치의 교육지침 확립에 精魂을 기울인 사람인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 원전이 「程朱의 學은 조선의 이퇴계에 전하고, 退野先生이 그 所撰의 『朱子書節要』를 읽고는 초연히 얻은 바가 있었다. 나는 이제 退野의 學을 전하여 이것을 今上皇帝(명치천황)에게 받들었다.」라고 하였다.

### 그 학문 사상의 골자

이와 같이 보아 올 때 江戸時代 이후의 학자 가운데도 특히 山崎派나 大塚派와 같이 인간탐구, 인간수양을 중히 여긴 학파의 사람들에 의하여 이퇴계는 격별히 尊信되었다고 하여 좋을 것이다.

그들은 知育 편중의 세간의 학문을 俗學이라 일컫고, 공자나 주자가 참모로 지향하였던 바를 지향하는 것이 正學이라고 하여 德育을 근저에 둔 「道의 學」을 창도하였다. 마음을 外界에 향하게 하는 것보다도 먼저 마음을 內界에 향하여 자성과 성찰과 체험을 쌓아 나가면서 항상 마음속에 움직이는 존엄한 생명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각하여 이것을 존속하고 기르는 것을 학문의 출발점으로 하고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자각하고 존양하는 것을 第1義로 하는 학문이라고 하여도 좋다.

인간에게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따뜻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천지의 生生不已하는 生生潑刺한 생명력과 이어진다고 하는 도리를 잘 자득하여, 거기에 산 보람과 인간의 사명을 감지하고 純粹無雜한 仁愛에 투철하는 것을 회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을 위하여는 敬이야말로 가장 肝要한다고 하였다. 敬이란 존엄한 것의 존경, 외경이나, 동시에 자기의 마음의 삼감이다. 그리고 삼감이란, 일을 할 때에는 일을 할 때대로, 잘 때는 잘 때대로 항상 그것에 정신을 통일하여 精魂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할 때에는 마음 본래의 빛나는 모습이 되찾아진다. 예를 들면 어떠한 大惡人도 이제는 죽는다 할 때에는 인간의 본래성에 되돌아 올 것이다. 그 본래성을 항상 불러 일으키는 것이 敬의 공부라고 하

였다. 또 脊骨을 반듯하게 바로잡는 것, 외형을 반듯하게 정제하여 엄숙하게 하는 것, 靜座를 하는 것 등도 간요한 일이라고 說하는데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의 起居動作이나 마음가짐법을 바로잡는 것을 着手處로 하여 세밀하게 간절히 교시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이욕과 이기의 덩어리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가정이나 사회의 행복은 얻을 수 없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인간본래의 존엄성을 자각하고 그것을 항상 존속하고 기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지향하여 행동해서 거기에 추호의 이기심도 끼어들 여지가 없도록 엄격하게 수련하여, 어떠한 곤란에도 이길 수 있는 인간으로 되어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에 활동하는 大賢, 君子가 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그 학문과 사상의 목표이다.

山崎闇齋派의 주장이 脈脈히 깊게 전하여져 명치유신의 사상적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근저에 이와 같은 깊은 철학관, 수양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元田永孚가 서구적 교육관과 극단적인 국수주의적 교육관을 깊이 배제하여 명치의 교육지침 확립에 진력할 수 있었던 것도 같은 사정이었다고 생각된다.

### 현대적 의의

그런데 현재 일본은 경제대국으로까지 끌어 올려졌으나 정신계는 황폐하여, 今後의 일본은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識者들이 다같이 깊이 우려하는 바이다. 사회의 풍조는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지향하기는커녕 인간의 劣惡性의 도발과 폭로에 광분하여 높은 이상을 잃어버리고 있다. 교육계는 사랑(愛)의 교육만을 강조하여 敬의 교육이 한층 더 중요함을 잃어버리고 있다. 노동계나 정치계도 이익 제일주의를 내걸어 숭고한 仁愛와 정의에 근거한 협조야말로 가장 존중하여야만 하는 것을 자칫 부정하고 있다.

존경과 삼감을 잇은 교육으로부터는 고귀한 진보와 향상을 바라는 자

가 나올 수 없다. 長上을 모멸하고 爲園騷動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필연이다. 이익 제일주의에 의하면 「上下交征利」하여 끝까지 빼앗지 않고는 그치지 않는 爭亂의 사회를 현출할 것은 맹자가 설파한 대로이다. 歐美 문명제국은 가지가지의 문명병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하여 일본도 이 病源에 파덕혀 들어가고 있으며 이윽고 한국도 전염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때에 본회의 사명은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 II. 李退溪의 생애와 사상

### 1. 略傳

#### 誕生 · 名號

李退溪는 연산군 7년(1501) 11월 25일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현 온혜동에서 태어났다. 이름은 滉, 처음에 字(通稱)를 季浩, 뒤에 景浩라고 하였으며 退溪 · 陶翁 · 退陶 · 溪叟 · 陶叟 등으로 號하였다.

#### 家系

그의 조상은 경상북도 眞寶에 있었으며 6世祖 碩은 고려말기의 관리였는데 그 아들 修는 공민왕(1352~1374)때 紅巾賊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 松安君으로 되었다. 松安君 때 住居를 안동의 周村으로 옮기고 云候, 禎을 거쳐 조부 繼陽 때에 예안의 온계동으로 옮겼다.

繼陽에는 두 아들이 있는데 長子를 埴 · 次子를 堉라 한다. 埴은 퇴계의 아버지이며 堉는 松齋라 號하여 官이 參判에 이르렀다. 埴은 일찍이 진사(관리채용시험 합격자)가 되어 제자를 취하여 학업을 가르치고 있었으나 40세에 세상을 떠났다. 埴의 先妻 김씨에는 2男1女, 後妻 박씨에는 5男이 있는데 제3男 瀧는 대사헌 參判에 이르고 제5男이 곧 퇴계다.

### 賢母의 薰陶

퇴계는 생후 겨우 7개월에 아버지를 잃었다. 이때 어머니 박씨는 많은 어린 자식을 끼고서 많은 고생을 해가면서 학비를 捻出하여 자식들에게 교육을 받게 하였다. 그리고 항상 자식들에게 훈계하기를 「다만 학문만을 할 것이 아니고 자기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하고 삼가는 것을 중히 여겨라」라고 하였으며 또 「세상에서는 과부의 자식은 교육이 없다고들 욕을 한다. 너희들은 남의 백배나 되는 성과를 올리지 않으면 譏評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가르쳤다 한다. 예로부터 위인의 출현은 대부분 그 어머니의 薰陶에 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의 사람됨이나 뜻도 이 賢母의 교육에 의하여 陶冶된 바가 있다고 推察된다.

6세가 되어 隣家の 노인에게 나아가 천자문을 배웠다. 매일 아침 담 밖에서 몇 번이고 默誦을 하고서 집에 들어가 매우 예의 바르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타고 나면서부터 온화하고 성실한 성질이었던 것 같다.

8세 때 쯤에 仲兄이 칼 같은 것으로 자신의 손을 상처 냈을 때, 그는 형을 껴안고 울었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물음에 답하여 「형은 울지 않지만 저와 같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플 것이겠습니까」라고 하였다고 한다. 6·7세 때 쯤부터 밤에 깊이 잠이 들었을 때에도 불리었을 때는 곧 잠 깨어 대답을 하였다는 것도 전하여지고 있다.

### 「論語」학습

12세가 되어 『논어』를 숙부인 松齋에게 나아가 배웠다. 어느날 「弟子入則孝, 出則弟」(學而篇의 말)의 章을 읽고는 스스로 경계하기를 「사람의 도리는 마땅히 이와 같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탄식하였다고 한다. 문인들이 기록한 바에 의하면 『논어』는 주자의 集注本을 배웠던 것 같다. 그리하여 어느날 송재에게 「理」字를 질문하여 「대저 사리의 올바름



이 이 理입니까」라고 하였다고 전하여지고 있다. 송재도 기뻐하여 「너는 이미 글 뜻을 이해하고 있다」고 칭찬하고는 「李家의 이름을 보전할 자는 반드시 이 아이일 것이다」라고 촉망하였다. 퇴계도 후년에

숙부 송재공은 엄격하여 학문에 當하여는 결코 타협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論語』와 集注를 암송하였을 때 全文一字도 틀리지 않았는데도 칭찬하지 않으셨다. 내가 학문에 게으르지 않은 것은 모두 숙부의 교육감독의 덕분이다.(『通錄』 권2, 鶴錄)

라고 술회하고 있다.

뒤에 향교에 들어가 동향의 선배로 이조의 名臣인 李穡巖(1467~1555)에게 나아가 배웠다. 그의 스승은 전 생애를 통하여 송재와 농암의 두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두 사람은 幼少時의 학문의 스승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퇴계의 학문은 스스로 공부하여 체득한 것이지 스승으로부터 직접 承受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있어서의 賢母의 집안에서의 가르침과 엄격한 숙부의 가르침에 의하여 얻은 정신적인 薰陶는 물론 결코 잊어버릴 수 없다.

#### 讀書勉學

14세쯤 때부터 홀로 독서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특히 陶淵明의 시를 사랑하여 그 사람됨을 사모하였다고 한다.

문인이 기록한 바에 의하면 17·8세경, 처음으로 주자의 學, 성리학이 있음을 알았던 것 같다. 19세경, 주자의 『소학』을 읽고 일상의 起居에 孝悌의 도(아버지와 형에 대한 道)를 실천하고 또 『논어』를 읽어 엄격하게 일과를 세워 刻苦勉勵하고 치밀한 고찰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이해를 깊게 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마침 性理大全 首尾2卷을 얻어 그 중의 太極圖說을 읽는 데 이르러 환히 눈이 열려 宋學의 端緒에 대하여 자득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다.(『通錄』卷二良錄) 당시의 詠懷의 시에 말한다

獨愛林廬萬卷書    홀로 林廬에 만 권의 책을 사랑하고  
 一般心事十餘年    一般의 心事, 십여년  
 爾來似與源頭會    爾來 源頭와 만남과 같은데  
 都把吾心看太極    모두 나의 마음을 잡아 태극을 본다.

20세 때 쯤, 『周易』을 寢食을 잃고 강구하여 드디어 건강을 회복하고 이래 多病한 사람이 되었다. 퇴계는 일찍이 말하였다.

나는 젊었을 때 發憤하여 학문을 하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밤에도 자지 않았으므로 드디어 병에 걸려 지금에 이르기까지 병약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학문을 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의 힘을 고려하여 잘 때는 자고, 일어날 때는 일어나, 어떠한 때, 어떠한 장소에서도 여러가지 체험을 쌓아 내 몸을 반성하고, 마음이 딴 길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마음쓰게 할 따름이다. 이와 같이 하면 병에 걸릴 일이 없다.(通錄 권2 長錄)

스스로의 체험으로, 잘 때는 자는 것에 전념하고, 일할 때는 일하는 것에 전념하여 언제 어떠한 곳에서도 정신을 집중하여 항상 반성 체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가르침을 창도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 「大學」

27세 進士의 시험에 급제하고, 다시 어머니의 희망에 따라 관리 채용의 국가시험인 과거를 보기 위해 대학에 나아가 배웠다. 이 대학에 배운 해를 柳西厓의 「退溪年譜」에는 23세條와 33세條에 掲載하고 있는데 퇴계가 金河西에게 보낸 시의 後序에 「癸巳秋西入泮宮云云」이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23세說은 확증이 없지만 癸巳 즉 33세 때의 일임은 명백하다. 또 문인 김성일이 퇴계의 말을 기록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일치한다.

少時로부터 多病하여 司馬試에 합격한 뒤로는 새삼스레 출세하려는 생

각이 없었다. 다만 아버이를 섬기고 기리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仲兄인 敦에게 권고되어 대학에 들어가 과거를 치르려고 하였다.

사마시에 합격한 것은 戊子年 봄, 즉 28세 때이다. 이 때 그는 성적의 발표를 기다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고, 발표를 듣고서도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다고 하니 퇴계는 이미 그 때부터 과거의 학문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었던 것처럼 생각된다. 서울의 대학(泮宮)에 와서 배운다는 것은 당시의 학생(관리 지원자)의 최대 명예로 여기는 바였다. 그러나 당시는 己卯(1519)의 黨禍(조광조 이하 17명의 죽임을 당했다)의 직후여서 사기는 진작되지 않았으며 학문에 공을 들여도 도리어 奇禍에 떨어진다고 하여 浮薄하고 戲謔的인 분위기 속에 있었다. 그 때문에 근엄한 퇴계의 擧措를 보고 웃는 사람이 많았으며, 다만 한 사람 金河西(名은 麟厚, 1510~1560, 퇴계보다 9세 年下)와만이 친교를 맺었다.

### 『心經』

퇴계가 대학에 배워서 얻은 최대의 수확은 김하서와 친교를 맺은 것과 특히 心經을 읽을 기회를 얻은 것이다. 『言行錄』에,

일찍이 上舍姓黃人을 방문하여 처음으로 心經附註를 보고 매우 여기에 마음이 끌리어 한 책을 얻었다. 그 注는 모두 程子, 朱子の 語錄인데 잘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었다. 퇴계선생은 문을 걸어잠그고 수개월간 沈潛反復하여 어느 것은 문자의 의미로부터 미루어 보고, 어느 것은 다른 책에서 생각해 보고 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자연히 마음에 이해하였다. 만일 납득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에는 무리하게 탐구하지 않고 잠시 옆에 놓아 두었다가 가끔 끄집어내서 선입관을 배제하고 완미하였다. 그 까닭에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되었다.(권2 艮錄)

라고 보이고 있다.

『心經』은 宋의 眞西山(1178~1235)의 著로 元의 程篁墩이 注를 加

한 것이다. 퇴계가 「心學」의 근본과 마음쓰는 법의 精微한 곳을 자득하며 독자의 학풍을 연 것도 실로 이 책에 계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술회하여,

나는 少時에 서울에 유학하여 비로소 이 책을 보고 入手하였다. 그 후 병으로 인해서 勉學이 정제되고 晩成의 이루기 어려운 탁식에 사로잡혔으나 心學에 처음으로 접촉하여 마음이 크게 움직이게 된 것은 이 책의 힘이다. 그러므로 평생 이 책을 尊信함이 四書(논어·맹자·대학·중용) 近思錄의 아래가 아니다.(『文集』 41, 心經後論)

라고 하고 있다.

또한 이 해 귀향하는 도중, 金慕齋(名은 安國)와 만났던 것도 그의 사상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퇴계가 晩年 「모재를 만나 비로소 성인군자의 論을 들었다」고 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 出仕·退處

퇴계는 中宗 29년(1534) 34세로 문과에 급제하여 承文院 副正字로부터 官界에의 첫걸음을 내어 디디기 시작하였다. 이때 金安老 一派가 정권을 전횡하여 퇴계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그 榮進을 阻止하였다.

39세 때 어머니의 죽음을 당해 官을 떠나 향리에서 3년의 喪에 服하였는데 그 뒤 安老도 실각하여 39세에 鴻문관 修撰이 되어 왕의 학문에 侍하기에 이르고 이윽고 賜暇讀書를 명받았다. 賜暇讀書라 하는 것은 문학의 士 가운데서 특히 선발된 자가 윤번으로 독서를 명받는 제도인데 한번 여기에 선발되면 장래의 榮進은 예약된 것이나 마찬가지로였다. 이후 퇴계의 官位는 순조로이 나아가 43세의 10월에는 文教의 중심인 成均관의 司成으로 승진하였다.

그런데, 中宗의 말년, 계비 문정왕후 윤씨가 異腹의 태자 仁宗을 폐하고 明宗을 옹립하려는 조짐이 나타났으므로 기미를 보는 데 예민한 그의 友人 김하서는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생각되는 黨禍를 예상하여 官을 사임하고 귀향하였다. 퇴계는 長句를 보내어 그 뜻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我昔與子游泮宮	내 전에 그대와 반궁에 노닐어
一言道合欣相得	일언에 도가 합하여 서로 뜻을 얻음을 기뻐하였네.
君知處世如虛舟	그대는 처세가 빈 배와 같다는 것을 알고
我信散材同樗櫟	나는 쓸모없는 재목이 지력과 같음을 믿는다.
富貴於我如浮雲	부귀는 나에게 있어 뜬 구름과 같으니
偶然得之非吾求	우연히 얻었다고 해도 나의 바라는 것은 아니네.
秋風蕭蕭吹漢水	가을바람은 소소하게 漢水에 부는데
海山千里君先去	해산천리, 그대는 먼저 가는구나.

곧 퇴계도 이 때쯤부터 官界를 떠나 산림에 退隱할 결의를 굳혔던 것 같아, 하서가 떠난 그 해 晩秋, 43세의 10월에 성균관의 司成으로 승진하고서는 곧 墓參을 이유로 휴가를 빌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 후 자주 任官되어도 대부분 사직하여 나아가지 않았으며 明宗 13년(1558) 58세까지 사직하거나 혹은 下命에 응하지 않은 것이 20여회에 미치고 있다.

仁宗(1545년 즉위)·명종(1546년 즉위)의 初年은 尹元衡·李芑 등이 권력을 전횡하여 이른바 乙巳士禍라고 불리우는 苛烈한 권력투쟁이 계속되었고 퇴계의 신변에도 위기가 닥쳤으나 겨우 九死에 一生을 얻었다. 퇴계도 은퇴의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뉘우치고 병을 이유로 해서 再三再四 모두 관직을 사임하여 마침내 46세 때에 鄉土인 낙동강의 상류 兎溪의 東巖에 養眞庵을 築造하여 山雲野鶴을 벗으로 하여 오로지 讀書求道の 생활로 들어갔다. 이때 兎溪를 退溪로 고치고 그것을 스스로의 號로 삼았던 것이다.

#### 賜額書院의 창시

그러나 퇴계에게는 그 뒤로 자주 任官의 下命이 내려 완전히 退居해 낼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腐敗紊亂한 중앙의 관계로부터 떠나기 위해 지방관을 지명하여 48세에 산수가 아름다운 충청도 단양군수가 되었으

며 얼마 되지 않아 형이 충청도감사로 되어오는 것을 피하여 경상북도 풍기군수로 전임하였다.

재임중 감사를 통해 上書하여 고려 말기의 주자학 장래의 祖로 불리우는 安晦軒 珦(1238~1301)의 讀書之地에 전 군수 周世鵬이 창설한 백운동서원에 扁額·書籍·學田을 내려줄 것을 청하여 실현을 보았다. 이것이 소수서원이며 조선에 있어서의 사액서원의 시작이다.

퇴계는 공립의 향교를 비롯하여 중앙의 대학도, 다만 관리 채용시험의 준비교육만으로 타락하여 참다운 인간을 만들어내는 교육의 本義에서 완전히 일탈해 버리고 있음을 개탄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당시의 향교의 敎員이 世人으로부터 낮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을 봄에 있어서도, 참으로 道를 구하여 자기를 수련하는 修道場의 설립이야말로 참으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조정으로부터 공인되고 게다가 경제적으로 독립자영할 수 있는 賜額賜田을 청하였던 것으로, 이것은 완전히 주자가 백운동서원을 부흥한 前例에 따른 것이다.

이로부터 퇴계의 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서원 설립의 기풍이 일시에 일어나 士氣도 쇄신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후세에 얼마 가지 않아서 차차 폐해가 생겨났으며 서원은 마침내 지방당론의 거점이 되어 자주 撤廢를 命받는 정황으로 떨어져 완전히 퇴계 등의 기대에 어긋나고 말았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퇴계는 官에 머문지 겨우 1년 만에 병을 이유로 향리로 돌아갔다.

#### 成均館 大司成

그 사이에도 정치상의 파벌싸움이 계속되어 드디어 퇴계의 형도 그 희생이 되었다. 그는 통곡하고는 이제야말로 은퇴를 결심하고, 자주 任官의 명이 내려져도 병을 의탁하여 出仕하지 않았다. 그리고 퇴계의 서쪽에 거처를 정하여 寒棲庵이라 이름붙이고 自省求道의 생활로 침잠하였다.

그러나 그의 명성은 자꾸 올라가 官位는 累進하여 52세 때에는 성균관 대사성으로 나아가고 사임이 허락되지 않아, 다음에 대학의 총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직무에 나아갔다.

당시 대학은 과거의 전단계로서 籍을 두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풍조에 있었으며 참다운 교육에서 전혀 거리가 먼 자리로 되어 있었다. 그 때문에 학생이 스승을 보는 태도는 모르는 타인을 대하는 것과 같았으며 학교도 일종의 숙소로 생각하여 식사의 좋고 나쁨으로 학생이 육성되고 있는나의 여부를 논하는 것과 같은 弊風도 행해졌다.

퇴계는 이 기풍을 고치고자 하여 「四學의 교사·학생을 諭示하는 글」을 만들고,

학교는 나라의 敎化의 원천, 모범이 되는 곳이고 士人은 예의를 두터이 하여 천지의 氣를 깃들게 하는 자이다. 나라가 학교를 설치하여 士人을 양성하는 그 뜻은 매우 높은 것이다.

라고 하여 스승과 학생의 사이는 예의를 第一로 해서 스승은 학생에게 엄격하게 하고 학생은 스승을 존경하여 각각의 도를 완전히 하여 忠信遜悌로서 행동하여야 함을 논하였으나, 아무래도 간단히 弊風을 쇠신할 수는 없었으며 얼마되지 않아 병에 의하여 사직하였다.

### 學의 晩成

퇴계가 처음으로 『朱子全書』를 얻은 것은 43세 때의 일로, 이것을 읽고 차차 힘을 붙여 학문의 요점을 포착한 것은 49세의 가을, 병에 의하여 풍기군수를 그만두고 퇴계로 돌아간 뒤의 일로 推察된다. 이 일은 『年譜』나 『言行錄』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그 자신 『朱子書節要序』에 다음과 같이 기록한 것에 의하여 지극히 명백하다.

嘉靖 癸卯(1543)중 우리 중종대왕께서 書館에 인쇄를 명하여 頒布하였다. 나는 이 때 처음으로 이 책(『주자대전』)이 있는 것을 알았으며

이것을 구하여 얻었다. 그 때는 아직 이 책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병에 의하여 官을 그만두고 兪溪라는 시냇가로 돌아가 매일 閉門靜居하여 이 책을 읽고 겨우 그 말의 맛이 있음과 그 의미의 깊음을 깨달았으며 특히 書簡에 더욱 느끼는 바가 있었다.

癸卯은 43세 때이다. 동방의 小朱子라고 일컬어지는 퇴계도 이 때까지 『朱子文集』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는 결코 조숙한 사람은 아니었으며 드물게 보는 晩成의 인물이라 일컬어야만 할 것이다.

퇴계는 이보다 앞서 『心經附註』 『太極圖說』 『周易』 『論語集注』 등에 의하여 程朱學의 大體를 이해는 하고 있었으나, 일찍이 문인에게 말하기를

근자에 『朱子大全』을 읽고는 깨닫는 바가 있었다. 그러나 그 심오한 데까지 미칠 수 없다.(『言行錄』1, 全富倫錄)

라고 하고, 또 高弟 金誠一은 퇴계의 학문을 평하여 「만년은 오로지 주자의 책에 마음을 썼으며 평생의 힘을 대저 이 책에서 얻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

퇴계는 이로부터 주자의 서간문의 抄錄과 그 註解에 정력을 傾到하여 『朱子書節要』로 정리하여 그 序文이 이루어진 것이 58세 때이다. 퇴계의 사상·행동·문장은 모두 주자의 서간문에서 나오고 있다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에 의하여 보더라도 퇴계의 학문이 독자적인 체계를 갖추기에 이른것은 50세 이후의 일이라 推察된다.

### 學的 활동

50세 이후의 학적 활동이 현저한 것은 다음과 같다.

53세, 鄭秋巒(名은 之雲, 1509~1561)의 『天命圖說』을 개정하고 後叙를 만들었으며 또 『延平答問』(주자와 그 스승인 李延平과의 문답)을 교정하여 後語를 만들고 다음 해에는 盧蘇齋(名은 守愼, 1515~1584)



의 『夙興夜寢箴注』를 논하여 그 禪味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56세, 「鄉約」을 草하고 57세, 「易學啓蒙傳疑」가 이루어졌으며 58세, 『朱子書節要』 및 『自省錄』이 거의 이루어져 序를 記하였다.

59세, 黃仲學(名은 俊良, 1517~1563)에 答하여 「白鹿洞規集解」(주자의 敎學의 定則을 보여준 「백록동 서원 揭示」의 주해)를 논하고 또 奇高峯(名은 大升, 1527~1572)과 四端七情 理發氣發의 문제에 대하여 논쟁하고 있다.

61세, 李晦齋(名은 彦迪, 1491~1553)의 『太極問辨』을 보고 크게 私淑하여 62세, 『傳道粹言』을 교정하여 발문을 만들고 다음 해 『宋季元明理學通錄』의 원고가 이루어져 서문을 記하고 64세, 李蓮坊(名은 球, ?~1573)의 心體無用論을 반박하고 66세, 李晦齋의 유고를 정리하여 「行狀」을 만들고 또 유명한 『心經後論』을 만들었다.

#### 陶山書堂

그런데 퇴계는 이 사이 56세에 鴻文館 副提學, 58세에 工曹參判의 요직에 임명되었으나 再三再四 固辭하여 서울에 머무는 일이 적었으며, 특히 60세 때 도산서당을 지어 스스로 陶翁이라 號하고부터 7년간은 완전히 서당에 기거하여 독서·저술·수양으로 자고 새는 생활로 들어가 한편 제자의 교육에 當하였다.

명종은 그의 명성을 듣고 자주 예를 두터이하여 불렀으나 그의 退隱의 결의를 번복시킬 수가 없었으며, 드디어 「招賢不至嘆」(현자를 불렀는데도 이르지 않는 탄식)의 題로 近臣과 함께 시를 짓고 또 가만히 畵工을 도산으로 보내어 그 勝景을 그리게 하고 거기에 宋寅(頤庵)에게 퇴계의 陶山記 및 雜詠을 쓰게 하여 병풍으로 만들어 朝夕景慕의 情을 불렀다고도 전하여지고 있다.

#### 明宗의 親政과 崩御

명종 20년(1565) 文定王后가 돌아가고 전횡을 極하였던 윤씨 일파

가 실각하였다. 명종은 親政의 기회를 얻어 크게 政教를 개혁하려 하고 資憲大夫·工曹判書·大提學이라는 顯官에 임명하여 퇴계를 불렀으나 그는 병을 이유로 固辭하여 향리를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명종 22년 67세때 明의 嘉靖帝가 崩御하고 新帝가 즉위하여, 명의 사절이 오게 되었음으로 해서 조정에서는 문학의 名流를 모아 그 접대에 當하게 하기로 하고 절실하게 퇴계를 出京을 권유하였기 때문에 그도 그만둘 수 없어 6월에 入京하였다. 그런데 돌연히 명종이 붕어하고 宣祖가 새로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7월에 퇴계는 명종의 行狀修撰廳 堂上脚을 명받고 또 大葬의 禮를 맡아 하는 禮曹判書에 임명되었으나 그는 이것들을 병에 의하여 사퇴하고 다음 달에 귀향하였다. 이 일에 대하여는 명종의 葬儀가 끝나기도 전에 귀향하였다고 해서 비난을 받았다.

#### 宣祖의 朝廷에

그러나 퇴계의 人望은 朝野를 움직였고 선조도 政教를 진흥하려 하고 있었으므로 그를 崇政大夫로 승진시켜 의정부 右贊成에 임명해서 간절하게 불렀다. 그는 사퇴하였으나 자주 내려지는 두터운 소명을 사퇴할 수 없어 드디어 68세의 노령으로 서울로 들어왔다. 이 때 大賢이 入京한다고 하여 서울 사람들은 뛰어다니며, 심부름하는 하복에 이르기까지 퇴계를 사모하였다고 한다.

그는 계속해서 大提學, 知經筵의 중직에 임명되었으며 그 기회에 선조에게 시무6조를 제출하였다. 이것이 戊辰六條疏로서 유명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繼統을 중히 여겨서, 仁孝를 완전히 다한다.
- 2, 讒間을 막고서 兩宮에 친히 한다.
- 3, 聖學을 두텁게 하여 治의 근본을 세운다.
- 4, 道術을 밝히고서 人心을 바로 잡는다.
- 5, 服心(大臣)을 미루어 耳目을 통한다.

6, 修省에 성실히 하여 天의 사랑을 받는다.

왕은 이것을 참으로 千古의 격언, 當今의 급무로 하여 잠시도 잊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다.

그 후 퇴계는 程子の 『四箴』, 『論語集注』, 『周易』, 亢龍有悔, 張橫渠의 『西銘』 등을 蘊奧를 기울여 進講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하루라도 빨리 고향에서 老病의 養生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재삼 사직을 원하여 드디어 최후봉사의 뜻으로 필생의 심혈을 기울여 『聖學十圖』를 올렸다. 왕은 嘉納하고 日夜로 이것을 座右에 두고서 강구하였다고 한다.

다음해 69세, 最要職이라 할 수 있는 吏曹判書에 임명되었으나 받지 않고 계속 귀향할 것을 청하였다. 마침 文昭殿의 議가 일어났으므로 퇴계는 국가의 祀禮의 大事에 관한 일로서 신중히 생각을 짜내어 廟圖와 上奏文을 올렸으나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드디어 歸志를 굳게 하였다.

드디어 귀향을 허락받기에 미처 하루 밤 궁전에 올라가 謝恩하고 왕의 下問에 대답하여 『聖學十圖』에 대해서 설명하고 특히 黨禍를 大戒로 삼을 것을 원하고, 또 大臣 李浚慶 등이 大事를 의탁할 만함과 기고봉이 萬事에 통한 학자라는 것 등을 말씀 올렸다.

그의 귀향에 當하여는 성대한 송별회가 개최되어 모든 사람들이 애석해 하였다. 名流의 인사들이 상소하여 大賢의 去留는 인심의 向背, 국가의 존망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그 退朝를 애석해 하였으므로, 이후로 퇴계가 致仕를 간청하여도 왕은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귀향한 후 퇴계는 더욱더 학문을 깊게 하여 奇高峰·盧伊齋 등과 서간으로 문답하고 제자들과는 쉬지 않고 『心經』, 『易啓蒙』 등을 講하였다.

臨終

다음해 선조 3년, 70세의 11월에 이르러 宗家の 時祭에 나아가 齋宿하고, 추위에 이기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12월에는 病勞가 악화하였다.

그러나 그 사이도 기고봉에게 답하여 『大學』의 致知格物說에 대해 정정하고 다른 사람의 서적을 반환하고 다른 이에게 주어야 할 서간을 정리하고, 손자인 安道에게 명하여 경주의 『心經』 판본 중의 誤字를 정정케 하였다. 12월 4일에는 형의 아들 穽에 명하여 遺誠을 쓰게 하였다. 거기에는 禮葬을 固辭할 것, 묘는 비석을 쓰지 말고 小石을 써서 그 전면에 「退陶晚隱眞城李公之墓」라 적고 그 뒤에 『朱子家禮』에 따라 鄉里·世系·志行·出處의 대개를 略書할 것 및 葬事, 家事에 대한 委細를 國授하였다.

그날 낮 頃에 諸生들과 만나려고 하여 자제들은 말렸으나 퇴계는 「死生之際이니 꼭 만나고 싶다」고 하여 上衣를 입고 諸生을 불러

「平日 잘못된 소견을 가지고 諸君과 종일강론하여 왔는데 이것은 또한 부끄러울 따름이다.」

라는 결별의 말을 고하였다.

12월8일 아침 그동안 愛玩하였던 매화 화분에 물을 붓게 하고 침상을 정리케 하고는 부축해 일으켜 받아 앉은 채로 숨을 거두었다. 1570년의 일이다. 참으로 학자다운, 그리고 大悟한 사람의 임종이었다.

訃報에 접한 선조는 3일간 조정을 폐하고 애도의 뜻을 표하였으며 大匡輔國崇大夫 議政府領議政 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를 追贈하였다. 신하로서의 최고의 관직이다.

#### 葬儀·祭祀

장의는 第1等領議政의 예에 따라 행하여졌다. 아들 穽 등은 遺誠에 근거하여 가장 간소하게 행하려고 하여 禮葬을 固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으며 다만 묘만은 유계에 따라 작은 자연석에 「退陶晚隱眞城李公之墓」라고 刻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그의 죽음을 슬퍼한 많은 사람은 며칠이나 고기를 먹지 않고 애도의 마음을 표시하였으며 문인들은 대부분 3년의 心喪에 服하였다고 한다.

沒後 4년, 향리 사람들은 상의하여 도산서당의 뒤에 서원을 건조하고 다음 해 落成하여 도산서원의 勅額을 하사받았으므로, 그 다음 해 (1576) 2월에 퇴계의 위패를 안치하고 釋菜의 예를 행하였다. 11월에는 文純公의 시호를 받았다.

도산서원은 風光明媚한 仙境에 있는데 지금까지도 서당 및 서원은 藏書, 水墨, 遺品과 함께 보존되어 참관하는 사람이 많으며 마치 유학의 성지와 같은 훌륭함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 독립 후에는 정부의 원조를 얻어 훌륭하게 수복되어 있다.

광해군 2년(1609) 金寒暄·鄭一蠹·趙靜庵·李晦齋와 함께 五賢으로서 공자묘에 從祀되었다. 그를 주로 제사하는 서원 또는 從祀하는 서원은 전국에 40여소에 이른다고 한다.

퇴계에는 두 아들이 있으며 次子 案는 일찍이 죽었고 長子 篤은 安道·純道·詠道の 三子가 있으며 자손은 安道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양반 중의 명문으로 저명하다. 當主 李東恩씨는 제15대의 종손이다.

(안병주 譯)